

하나님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인 고로 사람더러 하나님이라고 말해 해야 옳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점령하여 사람을 만든 고로 마귀가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님이 되면 영 원무궁토록 살게 되면서 마귀가 발붙일 곳이 없어져요. 마귀의 철천지 원수기간이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마귀인 고로 마귀가 사랑의 신이요, 사망의 신이 사자귀신이에요. 그 사자귀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간 속에 내리는 주체의식이 바로 사망의 신이요, 육천 년 묵은 붉은 용마귀예요.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포로된 하나님이 바로 사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마귀에게 포로 된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학문이 없었단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죠? 학문을 논하는 주체가 바로 사람인데 사람 실체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게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개 자식은 개요, 소 자식은 소요, 말 자식은 말이에요. 원숭이 자식은 원숭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자식만 사람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 고로 그 옛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왔죠? 이것은 우리나라 밖에는 없어요. 바로 인내천 사상을 읊부짚었는데 인내천 사상이란 말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에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왔던 것은 단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할아버지인 고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사람이라고 불러왔죠?

오늘날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마귀가 그렇게 불렀는데 바로 이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마귀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바로 마귀예요. 왜 그러냐하면 주체 영이 마귀인 고로 주체 영이 마귀라면 주인공이 마귀라는 얘기죠? 사람의 주인공이 마귀이니까 사람이 마귀 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었던 인간이 조상 아담과 헤와가 6천 년 전에 마귀가 모방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줄 알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순간 바로 눈을 통하여 마귀의 영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나라는 의식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으로 이 인간 속에 남아 있는데 그 양심이 나라는 의식에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것이 6천 년 전이예요. 그래서 자손만대로 내려오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자식들을 전부 죽여 왔어요, 살려 왔어요? 마귀가 바로 하나님을 죽여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을 때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영을 죽이면 바로 사람은 죽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이 세상에 학문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 거예요. 사람의 그 학문이 전부 잘못된 왜곡된 학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에 가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분향 천국이 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늘나라죠?

죽은 사람의 영은 자식 속에 있



구세주 조희성님

마귀 새끼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간다고 속이죠? 죽어서 천당 가가지고 영혼이 영원 무궁토록 천당에서 산다고 이와 같이 꼬시고 이와 같이 거짓말해서 오늘날 사이비 종교들이 그걸 논하고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죽는 고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고로, 하나님의 영을 죽이는 고로 사람이 죽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야, 유식한 사람들이야? 무식한 사람들이죠? 나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나이만 많이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아,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하고서 자기가 죽을 마음을 먹죠? 마귀가 그렇게 죽을 마음을 먼저 쥐가지고 그 다음에 지쳐서 쓰러질 때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바로 아주 잔악한 신이고, 마귀가 바로 악한 신인 고로 이 악한 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부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은 자식 속에 있

다

죽은 사람의 영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죽은 사람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은 자식 속에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은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은 피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피가 자식 속에 있어요, 죽은 사람의 피가 공중으로 날아가요? 자식 속에 있죠?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죽은 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식 속에 죽은 사람의 피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피로 자식이 만들어지죠? 부모의 피가 자식 속에 있죠? 자식 속에 그 부모의 피가 있듯이 오늘날 자손만대로 최고의 조상의 영도 바로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 속에 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 (모릅니다) 모르는 게 무식한 거야, 유식한 거야?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게 학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학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조상의 영이 들어 있다는 걸 우리들이 널리

전파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 속에 있고, 이제 그대로 그 사람이 죽을 때에는 생명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마귀가 죽여서 죽임을 당해서 죽는 것인 고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죽은 사람의 영이 들어서 살아 있을 때에는 죽은 사람들의 영들도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서 사는 게 아니예요. 조상님들의 영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조상의 영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내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세라는 거예요. 내세가 무슨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들은 말하죠? 무식해서 그래요. 내세라는 건 죽은 사람의 영이 사는 세계가 내세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영이 이제 손자 속에 산다면 바로 내내세(來來世)에서 사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이 고손자 속에서 산다면 내내내세(來

來來世)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사람보고 하나님 되라고 써어 있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도로 되어야 천당도 가고 하늘나라도 가고 극락세계도 가는 거지, 하늘나라 극락세계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간다고 성경에도 써어 있고 불경에도 써어 있죠?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써어 있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성령이 하나님인 고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되고, 6천 년 전에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말이죠? 다시 태어나는 말은 옛날에 하나님이었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었다는 의미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으로 태어나라, 이 소리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마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맹추들은 그걸 몰라. 성경은 그게 아니예요. 조상님들의 영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조상의 영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내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세라는 거예요. 내세가 무슨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들은 말하죠? 무식해서 그래요. 내세라는 건 죽은 사람의 영이 사는 세계가 내세예요. 아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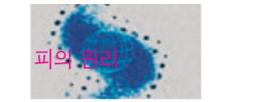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영이 이제 손자 속에 산다면 바로 내내세(來來世)에서 사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이 고손자 속에서 산다면 내내내세(來

요, 그걸 갖다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아요. 아니, 죄인이 성령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천당도 못 가고, 사람으로서는 극락세계도 못 가고, 하나님의 집에 못 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사람더러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그게 바로 거짓말도 보통 거짓말이야, 엄청난 거짓말이야? 엄청난 거짓말이죠? 진짜 그런가 싶어서 교회당을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난 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속에 천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야 하늘나라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늘나라가 아니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써어 있죠? 그러니까 산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세밀하게 알기 좋게 성경은 써어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멍청구리 바보들이 가르치니까,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구세주라야 성경을 가르치는 거지, 정도령이라야 똑바로 바른 말로 가르치는 거지, 이제 그대로 구세주가 아닌 존재는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2000년 11월 14일 말씀 중에서

우주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1)



왜 사람은 인간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마치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행복의 세계)를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현재 자신의 존재(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탁월하고 대단히 중요한 삶의 수순인 것이다.

우주론의 보편적 패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우주론)은 이미 원시시대의 신화에서부터 시작되어 현대의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맹렬히 탐구되어지고 있다. 고대 신화의 우주론, 이것에서부터 영항받은 각 종교의 우주론, 기독교의 천지창조설, 불교의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유교의 이기설(理氣說) 등과 현대 물리학의 대폭발(Big-Bang)이론 등, 실로 우주에 대한 설명체계는 복잡다양하다. 아무리 복잡다양한 우주론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씨에서 여러 색깔의 꽃이 핀다는 사실에 비유될 수도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인류의 기본적인 관념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동일한 씨가 다

른 여러 환경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 씨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지는 몰라도 결국 근본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론에 나타난 보편적인 패턴은 무엇인가 살펴보자.

한 처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도 세계는 존재했다. 세계는 발전하여 알이 되었다. 이 알은 일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윽고 갈라졌다. 갈라진 두 부분의 "알껍질" 중 하나는 은이 되고 또 하나는 금이 되었다. 은이 된 "알껍질"은 땅이고, 금이 된 "알껍질"은 하늘이다. -힌두교의 경전

이 세상에 현현하기 전의 영혼과 정신은 한 덩어리인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리면서 두 부분은 서로 나뉘어 서로 다른 몸에서 살게 되었다. 결혼할 때가 되면, 찬양할 진저, 영혼과 정신을 아시는 거룩하신 이께서는 이를 예전대로 묶어주시니, 이 둘은 다시 하나의 몸, 하나의 영혼이 되어, 한 인간의 오편과 왼편이 된다. -히브리, <조아르>

태고에 음양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혼몽한 채 오래 단하여 있었다. 천지는 혼돈하고, -규원사화, <조관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

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성경, <창세기>

위의 신화들은 모두 <여럿>은 <한>(하나)의 상태에서 쪼개져 나왔음을 보여준다. 하나의 상태는 신화 속에서 기본적으로 "알"로 표현된다. 쪼더 진보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흑암, 혼돈, 원초적

신화적 창조관과 철학적 창조관은 하나에서 여럿이 나왔다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대폭발이론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은 하나가 생기기 그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하는 의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물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신화 속에서 말하는 흑암, 혼돈, 알과 같은 상징은 아직 변화가 생기지 않은 상태로서, 하늘(남자)과 땅(여자), 낮과 밤, 삶과 죽음 같은 구별이 세계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면서 무형(하나)에서 형상(알)으로, 하늘(빛, 남성)과 땅(어둠, 여성)으로 만물로 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의 창세기에서도 역시 다른 기록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인간의 보편적

인 신화적 패턴이 표현되어 있다. 성경의 창조론만이 독특하고 유일한 것이라는 주장은 편협하고 독선적 오관이다. 성경의 창조관은 다른 원시인들의 신화적 사고를 좀더 논리적이고 미사여구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신화적 창조관에서 좀더 발전된 형태가 철학적 창조관인데, 몇 가지 살펴보자.

신화적 창조관과 철학적 창조관은 하나에서 여럿이 나왔다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대폭발이론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은 하나가 생기기 그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하는 의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역은 태극을 근본체로 하여(易有太極), 음양의 양의로 분화되어 나타나며(是生兩儀), 상호 교합함으로써 네 상을 낳고(兩儀生四象), 다시 네 상에서 팔괘가 나온다(四象生八卦) -<주역>

도(道)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음과 양 둘을 낳고, 음양 두 가지는 음기와 양기에 다시 충기(充氣)를 합하여 셋은 만물을 낳는다. -<노자도덕경>, 42장

만약 일(-)이 없다면, 다른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플라톤, <파르메니데스>

철학적 창조관 역시 신화적 창조관과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신화에서 표현된 알, 혼몽, 혼돈 등 구체적인 형상은 철학적 사유에 걸려져 태극, 도, 기, 일 등의 용어로 정의되고 알과 마찬가지로 모두, 전체, 무분별,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상태에서 쪼개져 나오게 된다. 철학적 우주론은 미개한 신화적 우주론에다가 화려한 치장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빅뱅우주론의 허점

우주의 기원에 대한 물음은 로켓트가 우주를 나는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과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표준 우주모형은 1940년대 말엽에 프리드만과 가모프가 세운 "대폭발"이론이다. 지금의 우주를 시간을 역행시켜 되돌림으로써 결국, 엄청난 밀도를 지닌 시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우주알"로 소급할 수 있다고 한다. 약 150억 년 전에 핵자(양성자나 중성자) 정도의 밀도를 가진 이 우주알이 폭발하였으며, 그 후 우주는 고무풍선이 팽창하듯 계속 팽창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의 우주와 같은 상태가 되었고, 현

재의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한다. 대폭발이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여럿 제시되고 있으나, 아무튼 이 이론은 신화적 창조론과 그 형태가 흡사하다. 믿지보다 더 작은 우주알에서 지금과 같은 어마어마한 우주가 팽창되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문이 하나 제기된다. 즉, 무한대의 밀도와 무한한 온도를 지닌 저 태초의 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왜 폭발하게 되었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의 우주가 끊임없이 요동한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교묘히 회피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우주가 처한 지금의 위치는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팽창과 수축현상" 중에서 팽창기의 한 국면이라는 것이다.

우습게도 일부 빅뱅 우주론자들은 빅뱅 이전의 상황은 물리학이 취급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풀지 아픈 문제에서 간단히 발뺌한다. 마치 17세기 아일랜드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어서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따위 무엄한 질문을 하는 녀석을 위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다"고 응답함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묘하게 받아 넘겼던 것이다.*